



서광운 옮김  
학원사/A5변형/500면/8500원

## 우주의 거대함과 인간의 왜소함 깨우쳐준 책

칼 세이건의 《코스모스》

별은 단지 빛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한다. 우리는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별에 다다를 수 없기에 별을 그리워하고 궁극해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. 소년 시절, 누구나 한번쯤은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천체 망원경을 올려놨을 것이고 더 자라서는 우주를 생각하며 인간의 왜소함과 이 세계의 거대함에 전율하며 뜬눈으로 새운 밤이 하루쯤은 있을 것이다.

《코스모스》(칼 세이건, 서광운, 학원사)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어느 봄날, 벚꽃이 바다를 향해 무작정 투신하던 때였다. 헌책방에서 이리저리 책을 뒤지며 찬란하기만 한 봄날의 오후를 대책 없이 낭비하고 있던 나는 《코스모스》라는 제목을 단 이 책에 눈길이 멈췄다. 조금은 촌스런 표지에 쌓인 먼지를 풀어내고 첫 장을 들추자, 몇몇 구절이 마치 유성과도 같이 긴 꼬리를 남기며 내 망막을 스치고 지나갔다.

“지구는 하나의 <장소>이다. 물론 ‘오직 하나만의 장소’는 아니다. 어느 행성도 별도 은하도 결코 우주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. 왜냐하면 우주의 대부분은 텅 빈 것이기 때문이다.” “우리는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. 우주에 대한 것은 서서히 알아가는 수밖에 없다” 등등. 이들 구절이 남긴 여운은 눈꺼풀에 맺힌 강렬한 빛의 잔영처럼 내 머릿속 한켠에 아련하게 남았다.

칼 세이건은 폴리처상을 수상한 작가답게 시적이고 신비로운 어조로 우주의 탄생과 별의 일생을 이야기한다. 화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유무,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, 인류의 행성 탐험의 역사 등 우주와 천문학의 여러 지식을 화려한 원색 사진들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거대한 우주의 멜로디를 들려주고 있는 한편의 시집과도 같다.

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는 바깥으로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, 그리고 그에 반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

한 점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삼 깨닫게 해준다. 칼 세이건은 우주가 “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영원한” 것이며 “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”고 말한다. 우주에는 1천억개 정도의 은하가 있으며 그 각각의 은하에는 1천억개 정도의 별이 있다. 그리고 아마도 모든 은하 속에는 그 별과 같은 수의 행성도 있을 것이다. 만약 우리가 우주 속에 아무렇게나 내뿜개쳐졌다면 우리들이 행성 위에, 또는 그 근처에 가 있게 될 확률은 1조에 1조배를 곱하고 다시 10억배 한 것 중의 1보다도 작다. 그러니까 1에 0을 33개 붙인 수를 분모로 하고 분자를 1로 한 수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 되는 셈이다.

또한 이 책에서 칼 세이건은 인간이 생존해 남아야 하며 그 생존의 의무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, 우주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.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그 우주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.

- 최갑수 기자

1991년부터 쌓아 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  
노하우는「부끄럽지 않는 품질」입니다.

편집 디자인(사보,사사,홍보물,교재 등) ● 자서전, 회고록집필 ● 교정 · 교열  
● 사사(社史)집필제작 ● 취재대행 ● DB자료입력 ● 사보제작 · 번역

Since1991 -----  
**(주)한국프리랜서그룹**
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-11(한서빌딩1105호)  
Tel: (02)784-4447 Fax: (02)784-4404  
E-mail: kfb@koreafreelancer.com  
www.efreelancer.co.kr